‘노인 돌봄 서비스’ 내 차례 언제쯤…

광주, 예산 바닥나 신규신청 막혀 … 구청마다 수십명씩 대기

거동불편·독거노인들 힘겨운 겨울나기

#1. 조모(여·77·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 거동이 몹시 불편하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 역시 나이가 많은 데다 거동이 불편해 매주 반드시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7월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있어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2. 독거노인 박모(68·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는 파킨슨병으로 다리가 불편하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아 한 달 80시간의 재가서비스를 받았으나 올해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할 수 없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내년 1월이 되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노인돌봄서비스의 신규신청이 막혀 대상 노인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 월 27~36시간의 가사 등을 돕는 복지사업. 그러나 국비(70%)와 시비(30%)로 시행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자치구마다 올해 정부가 예측한 수요 이상으로 신청이 늘면서 배정된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냈다. 질병을 앓거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이 겨울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일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319명으로, 지난해 798명보다 40% 가량 늘었다. 예산도 지난해 16억6200만원 가량에서 올해 32억9100만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자가 계속 몰리면서 애초에 책정된 예산범위를 초과, 대기자까지 늘어나는 등 정부의 수요예측이 실패하고 말았다. 자치구들은 매년 1월 노인돌봄서비스를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지만 광산구는 지난 3월 20일 이미 신청이 끝나버렸고, 북구는 지난 6월 신청이 마감돼 수십 명이 대기 상태다.

특히 북구는 최대 36시간까지 가능한 서비스 시간을 27시간으로 줄이며 수혜자를 확대하려 했으나 예산집행은 이미 끝났다. 동구도 10월 말에 신청이 마감됐으며 서구도 20여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올해부터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던 65세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돌봄서비스사업과 통합된 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대거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광주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만4718명(1~3등급)으로 요양보험을 신청한 인원 중 5350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요양보험 대상자가 8639명이었지만 3288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등급을 받은 신청자도 늘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아 돌봄서비스로 몰릴 인원이 2000 여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년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가는데 예산 배정은 한정적이라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지만 빠듯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업자·어촌계장 짜고 20억대 보조금 편취

1명 구속·공무원 등 8명 입건

‘수산물가공 육성사업’ 과정에서 자금 집행내역 등 국고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20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들과 어촌계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은 20일 어촌계장과 건설업자 등과 공모해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김씨와 공모한 어촌계장 박모(42)씨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 서류를 작성해준 고흥군 공무원 유모(4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어촌계장 박씨 등과 공모해 보조금 9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와 함께 자부담금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어촌계의 명의로 고흥군 금산면에 미역가공공장을 지은 뒤 허위 자부담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유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제출한 자부담 집행 내역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 관련 공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와 같은 지역에 미역가공시설을 지은 뒤 이를 담보로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수산물가공업자 한모(44)씨와 건설업자 이모(4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건물이 준공된 후 이를 담보로 사업비를 빼돌리기로 짠 뒤 허위로 자부담 내역서를 꾸며 보조금 9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해경은 어촌계 어구공동보관창고 신축과정에서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성군 회천면 어촌계장 김모(62)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조사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뇌물 의혹 최형식 담양군수 “허위진술 업자 고소하겠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0일 최근 불거진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진술을 한 업자 정모(49)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업자 정씨의 진술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씨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시설 영구퇴출

복지부, 처벌 강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폭행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와 폭언, 고함, 욕설, 위협, 방임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 ·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들이 영구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과징금 대체 없이 운영을 정지토록 하거나 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처분 규정도 신설해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5천433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도 8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홍도 50대 관광객 실종

홍도를 찾은 50대 관광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박모(59·서울시 서초구)씨의 부인으로부터 “홍도로 여행을 간 남편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도에 도착했으며,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계곡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으니 도와달라”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사랑의 쌀 1004포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20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할 1004포대의 쌀(20kg들이)을 차량에 싣고 있다. 이 쌀은 광주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이날 북구청 회의실에서 ‘2010년 성탄절 맞이 사랑의 쌀 1004포 나눔행사 및 열린 음악회’를 통해 기증한 것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익산 초·중학생 46명 신종플루 증상

보건당국 역학조사

익산지역 초등생과 중학생 46명이 신종플루 유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20일 “이날 현재 익산 함열중과 백제초등 12개 학교 학생 46명이 신종 플루 유사 증상자로 파악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병학생이 24명으로 가장 많은 함열중은 지난 17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나타났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건소는 덧붙였다. 시 보건소는 해당 학생의 등교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이들 학생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대부분의 학생이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처럼 의심환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각 학교의 휴교 조치 등은 하지 않고, 확진 환자에 한해 완치될 때까지 등교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검문 경찰 치고 도주 목포경찰, 20대 검거

목포경찰은 20일 검문에 나선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정모(21·목포시 연산동·대학 휴학)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새벽 2시42분 목포시 연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을 검문하려던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 윤모(33) 경장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경장은 다리 등에 전치 10주 가량의 상해를 입고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정씨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 경장이 자신을 검문하려고 하자 겁을 먹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성폭행 하려다 도주 ID 추적에 덜미

쌍나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0대가 자신의 게임 ID 때문에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서행.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3·서울시 노원구)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이모(여·21)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

○…김씨는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이씨와 지난 12일 밤부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자신의 게임 ID를 추적하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덜미’. /김호기자 kimho@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